

미제의 《전략적인내정책》의 흉악성과 그 파산

정 광 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한편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날로 강화되는 미제의 무력증강과 핵전쟁연습들로 하여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더욱 강도높이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무력증강, 핵전쟁 연습들은 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에 따른것이다.

오바마정부가 내놓은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장기적인 군사적 및 심리적압력을 가하여 우리를 자극하며 우리의 경제강국건설에 제동을 걸어 인민생활을 악화시킴으로써 당과 국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을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정치체제에서 그 무슨 변화를 가져올것을 노린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대결정책이다.

인내라는 말앞에 전략적이라는 말까지 붙여놓은것은 미제가 대화를 걸어치우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정세를 긴장시키는 전쟁도발책동을 얼마동안 해보다가 그만두는것이 아니라 끝장을 볼 때까지 해보겠다는것이다.

미국반동지배층속에서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 말이 정식 튀어나온것은 2010년이였다. 2010년 1월 29일 당시 미국무부 부장관이였던 제임스 스타인버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조선문제토론회에서 오바마정부의 대조선정책의 기본방향은 《전략적인내》라고 떠벌였다.

미제가 《전략적인내》를 대조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게 된것은 첫째로,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해버림으로써 저들의 《세계화》, 일극화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세계화》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조건에서도 정치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사회주의보루로 굳건히 서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으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여왔으며 특히 우리의 평화적인 핵활동을 구실로 삼아 조선반도《핵위기》를 산생시키고 압력의 도수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의 초강경대응으로 회담락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이 대화들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였다.

대화들에서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실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와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 조미관계정상화문제가 토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것은 지역의 안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방도로서 그 어떤 논리로도 부정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에는 서울의 룡산과 경기도의 동두천, 평택, 오산을 비롯하여 도처에 수많은 미군사기지들이 전개되어있으며 여기에 3만명이 훨씬 넘는 정예병력과 각종 장갑무력,

수백대에 달하는 각종 자행포들과 로켓포들, 수백기의 공격 및 요격미싸일, 수백대의 각종 직승기뿐만아니라 《F-16》전투기를 비롯한 백수십여대의 각종 군용비행기들이 배비되어있다. 남조선에 저축되어있는 각종 탄약만 하여도 60여만t에 달한다.

보다 엄중한것은 남조선에 1 720개의 핵탄두가 배비되어있는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철수하지 않고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관계정상화를 운운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한다는것은 곧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그들이 시종일관 추구하여온 세계제패야망을 포기한다는것이다.

결국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철수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핵을 포기하고 상용무기를 축감할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조미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체결도 하지 않겠다는 흥심을 드러냈으며 나중에는 회담을 파탄시키고 침략무력증강과 핵전쟁연습을 강행하여 대화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전략적인내》의 길로 나가게 된것이다.

미제가 《전략적인내》를 대조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게 된것은 둘째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고 그를 구실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보장함으로써 주변의 대국들을 누르고 세계제패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세계인구의 40%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시장으로 되고있으며 막대한 자원부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21세기 세계경제발전의 중심으로 되고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새 세기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항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원인들로 하여 미제는 우리와의 대화와 협상통로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켜 우리 공화국을 질식, 와해시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고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내정책》에 매달리게 되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증강하고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으로 정세를 긴장시키는 미제의 책동은 비단 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침략무력의 증강과 전쟁연습을 통한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은 사실상 미국이 저들의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에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며 랭전시기에 이어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1953년 10월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호상방위조약》체결로 남조선에 대한 미군주둔의 제도적장치를 마련한 이후 미국은 남조선에 웅근 한개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을 항시적으로 주둔시켰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미제는 우리 인민과 세계의 평화애호적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에 못이겨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축감놀음을 벌려왔지만 그 병력수를 3만명이하로 떨군적은 한번도 없었다. 병력수를 축감하는 경우에도 현대적인 무장장비의 배비를 통하여 사실상 전반적인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곤 하였다. 더우기 1994년에는 우리의 《핵위협》을 구실로 당시까지 형식적으로나마 내걸었던 남조선강점 미군축감계획을 백지화해버렸을뿐만아니라 조선반도유사시 이 지역에 투입할수 있는 무력을 1990년대초에는 48만명, 1990년대 중엽에는 63만명, 2000년대에 와서는 6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증강하는것과 함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왔으며 그 규모와 기간, 회수도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늘이고있다.

랭전종식후에만도 미국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 《련합전시증원》연습, 《독수리》합동군사연습, 《독수리련합전시증원》연습,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핵전쟁연습들을 계속 벌려왔다.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가장 위험천만하고 흉악한 침략정책이다.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의 위험성과 흉악성은 최근 미국이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침략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하나만을 실례로 들어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 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군사령부》의 주관밑에 실시되던 《포커스 렌즈》연습과 1968년부터 피뢰정부의 주관으로 실시되던 《을지》연습을 통합하여 1976년부터 해마다 벌려오던 《을지 포커스 렌즈》합동군사연습의 연장으로서 2008년부터 《자유의 수호자》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다.

이 군사연습의 위험성은 그것이 기본숙련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작전계획 5027》의 내용과 연습에 동원되는 병력수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작전계획 5027》은 1978년에 창설된 《련합군사령부》의 조선침략을 위한 핵전쟁계획으로서 1단계에서 미군의 신속전개역제무력을 조선반도에 전개하며, 2단계에서는 서울이 북지역에서 우리의 《공격》을 저지시키고 후방시설들을 파괴하며, 3단계에서는 우리의 주요전투력량을 소멸하고 전선을 돌파하여 진격하며, 다음단계에서는 평양을 고립 및 점령하며, 마지막으로 남조선주도의 《통일》을 실현한다는 5개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 침략계획은 제1차 《조선반도핵위기》이후인 1994년부터 2년에 한번씩 개정되어왔다.

이러한 침략전쟁계획을 숙련하기 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군뿐아니라 미국본토와 괌도,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있는 미군병력과 예비군을 포함한 피뢰군병력 그리고 피뢰행정부 각 부, 처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등 380여개의 기관 및 단체가 동원되고있다. 더욱기 미국은 2010년부터 이 전쟁연습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

2009년에 연습에 동원된 미제침략군병력이 1만여명이였다면 2010년에는 3만여명으로 늘어났고 2011년에는 미제침략군과 피뢰군 그리고 민간인들까지 포함하여 무려 53만여명이 연습에 동원되었다.

특히 2011년에 벌어진 이 전쟁연습에서 미국은 그 누구의 《급변사태》라는것을 가정하고 《급변사태시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탐지, 제거하는 연습》을 벌려놓고 《북안정화 및 민정이양작전》훈련이라는것까지 감행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은 지속적인 군사적압력으로 우리를 질식시키고 우리 내부의 붕괴를 꾀하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함으로써 이 지역의 대국들을 제압하고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침략정책이다.

그러나 《전략적인내》로 우리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은 오늘 파산에 직면하고있다.

미제의 《전략적인내정책》이 파산에 직면하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전략적인내정책》에서 미국이 기대했던 우리 내부의 와해, 정치체제의 변화라는 꿈이 산산히 부서져버렸기때문이다.

미제의 끈질긴 군사적압력과 봉쇄속에서도 특히 오바마행정부가 《전략적인내정책》에

매달린 지난 4년간 우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보다 높은 경지에 올라섰으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충만된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굳건한 것이며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군사적압력과 봉쇄로 경제강국건설에 제동을 걸어 인민생활을 악화시키고 당과 국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을 허물어버림으로써 그 무슨 내부로부터의 《붕괴》, 《체제변화》를 노렸던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의 파산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미제의 《전략적인내정책》이 파산에 직면하게 된 것은 다음으로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됨으로써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던 미국의 전략적기도가 물거품으로 되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의롭고 선량해도 힘이 없으면 민족의 존엄과 평화가 외세의 통략물로 되고 만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태들이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적대세력의 압력과 위협이 강화될수록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더욱더 백배해지고 있다.

오바마행정부가 우리와의 대화통로를 일체 차단하고 군사적압력과 핵공갈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우리의 막강한 군력은 미제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핵전쟁으로 번져질 것이며 미국에도 파국적후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결국 미국내에서도 저들의 《전략적인내정책》의 비현실성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 미국회에서는 《전략적인내》는 근본적으로 《관망정책》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전략적인내정책의 기간은 얼마인가.》, 《수백년, 수천년동안 인내해야 하는가.》, 《평생 인내해야 하는가.》하는 등 대조선정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문제전문가들은 《전략적인내정책》은 결과가 없으며 미국이 정책을 바꾸고 회담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핵공갈과 군사적위협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전략적인내정책》이 파산에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우리의 자위적국방력의 강화로 미제의 《전략적인내정책》은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